

NEXUS BRIEF · NB-2026-103 · 통화정책·기준금리·공적 설명책임

금리 인상 설명은 결정문·정기보고·국회답변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법 제1·5·6·96조가 금리 결정의 설명을 어떤 문서와 절차에 맡기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보도자료와 2026년 1월 2일 시행 한국은행법을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9.30	연번	2026_103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30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금리 인상의 설명책임을 하나의 의무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정 직후의 의결문은 당장의 판단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누적된 근거와 전망을, 국회 출석·답변은 외부 검증을 말합니다. 법적 최소선은 한국은행법 제5·6·96조이고, 국민이 실제로 평가하려면 세 문서 사이에서 전망의 변화, 반대 위험과 다음 결정의 조건이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 3.00%로 운용한 배경을 물가, 성장과 금융안정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개별 국민에게 금리 인상 사유를 설명하는 단일 조항을 두지 않고, 투명성 노력·연간 운영방향 공표·연 2회 이상 국회 보고와 총재 답변을 결합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현행법은 금리 결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서를 지정하지 않고 목적, 공표, 보고와 답변 절차를 나눠 둡니다.

보고서 제출	매년 2회 이상	한국은행법 제96조
보고 대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거시 금융안정상황	국회 제출
기준금리	2.50% → 3.00%	2026년 두 차례 연속 인상
결정의 세 축	물가·성장·금융안정	2026년 9월 보고서
연간 공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은행법 제6조
개별 설명 조항	별도 규정 없음	공적 보고·공표 체계와 구분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고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는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총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보고·답변 의무이지 특정 금리결정에 대한 개인별 설명청구권은 아닙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제1조는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에 두고, 통화신용정책 수행 때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도록 합니다. 물가와 금융안정이 동시에 판단틀에 들어가는 법적 출발점입니다.

제5조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노력과 제6조의 물가안정목표 설정·연간 운영방향 공표는 정책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층위입니다. 개별 결정의 세부 논증까지 법률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96조의 정기 보고서와 국회 답변은 사후 검증의 층위입니다. 의결문, 기자간담회, 의사록과 보고서가 법정 의무를 보완하지만 각 문서의 공개시점과 정보량은 다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변동금리 대출자, 예금자, 주택·채권·주식 보유자와 자금조달 비용이 바뀌는 기업입니다. 같은 0.25%포인트 인상도 계약의 금리 재산정 주기와 만기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다릅니다.

정책의 적정성은 결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물가·성장·주택·가계대출 자료, 전망 오차와 대안 시나리오를 결정 시점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누적 인상	0.50%p	2.50%에서 3.00%
1억원 변동금리 대출	연 50만원	금리 0.50%p 전가 가정
법정 정기보고	연 2회 이상	국회 제출 최소 횟수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결정문과 보고서 사이의 전망 수정표가 없습니다

물가·성장·금융안정 판단이 회의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표로 이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02 · 금융안정 위험의 가중치가 수치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금리 경로를 얼마나 바꿨는지는 정성 설명에 머물릅니다.

03 · 법정 보고 횟수는 정보의 충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 2회 이상이라는 최소 횟수만으로 반대 논거와 불확실성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국회 답변은 요구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제96조 제2항의 출석·답변은 국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를 전제로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금리 숫자만 보지 않고 의결문·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사록의 판단 변화와 공개일을 함께 봅니다. - 대출 부담은 잔액에 금리 변동폭을 곱해 연간 증가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금리 전망을 확정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가·성장·금융안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국은행	- 회의별 핵심 전망과 위험 가중치의 변화를 같은 표로 누적 공개합니다. - 기준금리 경로를 바꿀 상·하방 조건과 사후 오차를 보고서에 연결합니다.
국회	- 제96조 보고에서 직전 결정의 근거 변화, 전망 오차와 대안 시나리오를 정례 질의합니다. - 보고 횟수보다 답변 가능한 데이터와 비교표의 공개범위를 점검합니다.

갈림길

세 층위의 설명이 금리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후책임을 함께 높이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현재 공개 형식만으로는 회의별 위험 가중치와 대안 시나리오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A 판단 변화표 공개 결정문·보고서·의사록이 같은 지표와 시계열로 연결돼 정책 반응함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B 문서별 서술 반복 결론은 확인되지만 무엇이 바뀌어 금리를 움직였는지는 사후에도 모호하게 남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의사록, 다음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국회 제출·답변 자료를 대조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기준금리 인상 뒤 취약차주 지원 기준은 과거형입니다 ↗

[넥서스 리서치](#) 통화·금리 연구 전체 보기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01	1차 · 기준금리 2.50%에서 3.00%로 인상한 배경과 향후 판단요소 한국은행,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보도자료, 2026.9.10 · 확인 2026-09-30 원문 열기 ↗
----	---

02	1차 ·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국회 제출과 원문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9월), 2026.9.10 · 확인 2026-09-30 원문 열기 ↗
03	1차 · 목적·투명성·연간 운영방향·국회 보고와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법 제1·5·6·96조, 시행 2026.1.2 · 확인 2026-09-30 원문 열기 ↗
04	파생 · 1억원 대출의 연간 이자 50만원 증가 계산: 1억원 × 0.50%포인트. 금리 변동폭이 전부 전가된다는 가정 · 확인 2026-09-30

추적 예정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의사록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성장·금융안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분의 '금리 인상을 설명할 의무'를 개인별 설명의무로 읽지 않도록, 현행법상 공표·정기보고·국회답변의 세 층위로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통화정책 자료와 현행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금리·대출·투자에 대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